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이 취업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학업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준호
호남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진춘화
호남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the College Students on Employment Anxiety: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 Stress

Jun-Ho Jang^a, Chun-Hua Jin^b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nam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30 May 2019, Revised 10 June 2019, Accepted 18 June 2019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n employment anxiety based on existing prior study and verified the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 stress between self-efficacy and employment anxiety, and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 stress between self-esteem and employment anxiety and the analysis result are as follows. The first result shows that self-efficacy and self-esteem negatively affect employment anxiety. Second, academic stress has not played a role of moderat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employment anxiety. As academic stress increases, employment anxiety increases. However,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confirmed that the academic stress can be an independent variable that explains employment anxiety. Finally, academic stress plays a role of moderat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employment anxiety. This means that students with relatively high self-esteem are less likely to have employment anxiety than those who do not, and that increasing academic stress increases the employment anxiety of college students.

Keywords: Academic Stress, Employment Anxiety, Self-Efficacy, Self-Esteem

JEL Classifications: L20, M50, N30, I20

^a First Author, E-mail: jjh4653@honam.ac.kr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2016074@honam.ac.kr

© 2019 Management & Economics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글로벌리즘과 취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대학생들의 취업문제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학생의 취업난과 취업 불안감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2018년 8월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고용률은 1년 전 같은 시점보다 0.3%포인트 하락한 60.9%를 나타냈으며,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3만 4000명 늘어 113만 3000명이 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의 대학생 3천 29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대졸 신규채용이 어렵거나 비슷하다는 답변이 77.2%에 달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대학생이 취업을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서울산업진흥원(SBA)이 올해 4월과 5월에 걸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만 20~39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래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이를 위한 준비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전공에 관한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게 된다. 이로부터 현재 대학생들은 최근 취업 환경에서 상당한 취업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위한 준비활동, 즉 학업과정에서 학업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Bandura (1986)는 자기효능감을 특정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자신의 행동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 진로탐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자존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행하는 지속적인 평가로서 전통적으로 정신적, 사회적 생활의 지표인 동시에 행동조절인자로 간주되고 있다(King, 1997). 높은 자존감은 정서적 안정성, 삶의 만족, 성공적 진

로 선택 등을 예측하는 반면, 낮은 자존감은 분노감, 신체적 공격 행동, 우울과 무기력감 등 부정적인 변인과 관련이 있다(Judge and Bono, 2001).

사회적 고용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대학생의 취업 불안감이 보편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대학생들이 순조롭게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데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한편, 인적자원의 분배와 충분한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특히 대학생의 취업 불안감과 사회적 지지 등 영향 요인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대학생의 취업지도 및 취업심리교육의 이론과 방법 모두에 일정한 이론과 현실적 의의를 가지는 동시에 대학생의 심리건강수준의 제고와 유지에도 일정한 지도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취업 환경 조성과 함께 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업스트레스와 취업 불안감을 비롯한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멘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적 서비스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자존감과 학업스트레스, 자존감과 취업스트레스 등 스트레스를 위주로 하는 내용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 자기효능감과 취업불안에 관한 연구, 학업과 취업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지만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자존감, 취업불안감 및 학업스트레스를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Kim Ui-Chol and Young-Shin Park, 2001; Lee Jae-Yeon, 2014; Lee Mi-Kyung, 2004; Seo Myung-Ho, 2010; Kim Myung-Ok, 2011; Park Young-Won, 2017; Kum Jeong-Hwa, 2018; Park Yun-Hee, 2017; Cho Gyu-Pan, 2008; Choi Hae-Rim, 1986; Jung Bong-Hyun, 2009; Lee In-Sook, 2011; Yim Yeon-Kyoung, 2017; Kim Yeon-Jung and Eun-Young Son, 2012; Kim

So-Hee and Jung-Sun Hahn, 2007).

대학생을 대상으로 출간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Park Yun-Hee (201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 불안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Park Mi-Young and Tae-Hoon Kim (2016)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취업불안감이 낮다는 것이 밝혀졌다. Jeon Min-Ji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높으면 취업 준비 행동이 높으며 취업스트레스는 적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학업스트레스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자기효능감과 취업불안감과의 관계, 자존감과 취업불안감과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전무(全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의 조절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이자 기존연구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자아형성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이 취업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불안감과 취업 불안감

1) 불안감

불안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하거나, 분위기 따위가 슬렁거리어 뒤숭숭 하거나 몸이 편안하지 아니한 것을 가리킨다. 즉, 위협과 위협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특정한 상황에 대해 자신이 위협받는다 고 받아들임으로써 야기되는 두려움, 긴장감, 우려, 근심 등의 부정적

인 주관적 감정이 불안이며, 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을 일컫는다. Beck (1979)은 불안이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준비하도록 만드는 자극이라고 정의하였으며, Barlow (2004)는 불안을 다가올 부정적인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상태라고 정의하였다. Ohman (2008)은 불안이란 미래의 위협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이며 불편한 느낌과 신체적 긴장이 동반된다고 하였다.

2) 취업 불안감

취업불안감의 정의에 관하여 Cho Gyu-Pan (2008)은 취업을 앞둔 사람들이 취업준비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이라고 하였으며, Park Young-Woo (1994)는 상태불안의 일종으로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Li (2008)는 취업환경 중에서 위협이나 자존심이 위협을 받았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느끼는 일종의 정서적인 체험이라고 정의하였으며, Pan and Lu (2006)는 대학생이 졸업 후 구직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당초 설정한 취업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여 취업실패 상황으로 생기는 정서적 체험이라고 하였다. 또한 Zhang (2005)은 구직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생기는 현실에 대한 부적응과 생리적 반응이며, 그 불안감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Zhao and Le (2017)는 대학생이 취업환경으로부터 오는 내적·외적 자극으로 인하여 취업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고 느낄 경우, 정신적인 긴장감을 느끼거나 우려를 초래하여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자기부정으로 인하여 취업 공포를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겪는 취업 불안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대학생의 취업 불안감이란 졸업 및 취업에 직면하였을 때, 취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

여 발생할 수 있는 취업실패 상황으로 인한 정서적 체험이며, 학생 본인이 자신의 장래를 예측할 수 없고 취업경쟁과 이로부터 오는 심리적 충동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몰라서 발생하는 생리적이고 행동적인 변화를 말한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Bandura에 의하여 1977년에 제안된 개념이다. Bandura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특정의 상황 하에서 순조롭게 임무를 완성할 수 있다는 신념, 판단 혹은 자아감수라고 정의내렸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행동 및 자신의 기능을 활용하여 특정의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종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자아개념과 자아제어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개인의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즉, 자기효능감이란 어떠한 특정 과제를 본인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느끼는 개인의 판단이며, 획득하고자 하는 행동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개인의 기대감이나 확신을 의미한다.

Bandura (1977)는 개인이 어떤 과제를 쉽게 수행할 수 있다고 여기면 자기효능감의 기대가 높아지고, 개인의 성공경험들을 통해서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행동할 때 동기적 심리과정의 효능을 발휘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율조정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andura에 의하면, 자기효능감 수준은 행동상황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는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만을 선택하여 행동하나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위협적인 상황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 한다.

또한 Bandura는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산출할 지에 관한 '결과기대'와 그 결과를 산출하기에 필요한 행동을 잘 해낼 수 있는지에 관한 '효능기대'를 제외하여 자신이 어느 정도의 효능기대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지각을 하는 것을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적절한 스킬과 충분한 동기가 있을 경우, 자기효능감은 사람들의 활동 선택, 어느 정도의 노력을 투여할 것인지, 어느 정도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노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즉, 실적이 동일하게 낮은 사람일지라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노력을 하고 과제를 완성할 때까지 노력을 하나,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포기하려고 한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 여부에 대한 추측과 판단이다. 타인의 행동이 자신에게 강화가 생기지 않더라도, 사람은 행동 결과가 가져오는 효능에 대해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그 행동을 할 수 있다.

3. 자존감

자존감(self-esteem)은 폭넓은 연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내리고 있다. Branden (1992)은 자존감이란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떠한 일이든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마음이며, 삶에서의 기본적인 도전 과제들을 헤아리고 판단하여 다룰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뜻한다고 하였다. Coopersmith (1967)의 연구에 의하면,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의 개념으로 자신의 능력과 태도, 능력, 의의 및 성공 여부를 믿는 정도를 표현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의미한다.

Ryu Bu-Yeol (2006)은 자존감이란 자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가치 있

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주관적인 상(像)으로 자기 특성에 대한 가치를 의미하며, 스스로에 대한 내적 이미지와 부모, 스승, 친구 등 주요한 다른 사람들과의 경험에 의해 후천적으로 상호간의 작용을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 전체 삶의 과정에 걸쳐 변화해 나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였다.

요컨대, 자존감은 자기 자신이 느끼는 긍정적 평가이며 개인적 가치관이다. 이러한 인식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수용으로 형성된다. 또한 자존감은 인간의 생애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의 바람직한 적응과 건전한 성격발달 및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이며, 인간의 동기, 감정, 행동,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Park So-Yeon, Jin-Kyung Kim and Taek-Young Lee, 2011).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자신을 좋아하므로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낀다. 즉, 자기 능력에 따른 자신감이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고 자기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다.

4. 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

1) 스트레스

스트레스(stress)의 사전적 의미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심리상으로 신체상으로 느끼는 긴장 상태이다.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 영역의 연구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학자마다 견해가 달라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Lazarus (1984)가 주장한 개념이다. Lazarus

는 스트레스를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의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Selye (1956)는 스트레스를 어떤 요구에 대한 신체의 비 특정 반응과 신체의 소진이라고 하였으며, Lazarus and Folkman (1984)은 스트레스란 환경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자신의 소유한 자원의 양을 넘거나 자신이 자원을 요구하여 자산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Lee Yang-Sook, 2013). 또한 Seo Hee-Joo (2003)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인 스트레스 증상은 개인이 스트레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 혹은 자극이 개인이 적응할 수 있는 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작용을 뜻한다.

Choi Hae-Rim (1986)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스트레스 근원을 가정과 대학 생활, 본인과 친구와의 대인관계 및 환경문제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Won Ho-Taek and Soon-Hwa Kim (1985)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대학 학업에 대한 좌절과 위협, 친구관계, 이성교제, 학과공부, 학내문제, 가치관의 갈등, 주체성, 신앙문제, 경제문제, 가족문제, 건강문제 등 11개의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중 공부에 대한 위협과 좌절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2) 학업스트레스

Lee Joo-Won (2008)은 학업으로 인하여 생기는 우울, 긴장, 불안감, 공포, 근심 등의 심리를 경험하는 정도를 학업스트레스라고 하였다. 또한 Bak Byung-Gee and Sun-Mi Park (2012)의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는 공부, 성적, 수업 등에서 비롯되는 학업과 관련된 일로 부모나 교사 혹은 학생 스스로의 압력에 의해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것과

같은 심리상태의 불균형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Lee In-Sook (2011)은 학업으로 유발되는 부정적 심리상태를 학업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다.

Choi Jae-Hee (2005)는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유난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학력을 중시하는 과도한 교육열, 입시경쟁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느끼는 학업스트레스가 이미 알맞은 수준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Oh Mi-Hyang and Sung-Moon Chun (1994)은 학업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을 환경적 요소, 대인 관계적 요소 및 학사적 요소와 진로로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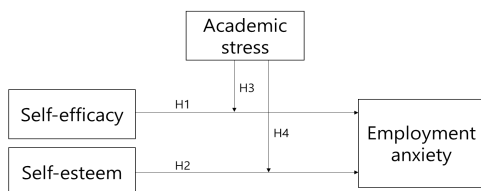
이처럼 학업스트레스는 학교 환경에서 발생하는 학업과 관련된 심리적 부담감이며, 이는 긴장, 두려움, 불안, 우울증이나 신경질, 자살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를 이상의 여러 정의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Oh Mi-Hyang and Sung-Moon Chun (1994)의 정의를 참고하여, 공부나 성적을 비롯한 학업으로부터 대학생이 느끼는 힘겹고 하기 싫거나 귀찮다고 생각되는 정신적 부담과 불안감, 불안, 우울, 근심, 긴장과 같은 편하지 못한 심리상태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가설의 설정

Park Young-Won (2017)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 과정에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변수이며,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차이에 따라 취업준비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Seo Myung-Ho (2010)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의 내적 변인인 자기효능감은 진로상담 중에서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Kim Myung-Ok (2011)의 연구 결과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과 취업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대학교 3, 4학년 집단만이 취업 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학스트레스, 취업불안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Kim So-Hee and Jung-Sun Hahn (2007)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졌으며, Kum Jeong-Hwa (2018)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자신감이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Park Yun-Hee (2017)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 Gyu-Pan (2008)은 취업불안을 경험하는 요인을 낮은 학교 성적, 불충분한 취업준비와 같은 자신의 내적인 요인과 외적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Kim Yeon-Jung and Eun-Young Son (2012)은 취업과 학업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취업불안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취업문제와 학습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Kim Ui-Chol and Young-Shin Park (2001)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대응방식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Lee Jae-Yeon (2014)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 스트레스 수준을 조절하는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Lee Mi-Kyung (200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 스트레스와 진로 자기효능감은 상호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 자기효능감이 취업 스트레스를 저하시키는 관련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자기효능감은 취업불안감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학업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과 취업 불안감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즉,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취업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은 높아질 것이다.

Choi Hae-Rim (1986)은 자존감은 취업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동력으로써 취업스트레스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Jung Bong-Hyun (2009)의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높은 초등학생들은 학업스트레스가 낮다는 것이 밝혔다. Lee In-Sook (2011)과 Yim Yeon-Kyoung (2017)의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는 낮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Kim Hyon-Dong (2014)의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직조건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H2 자존감은 취업 불안감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학업스트레스는 자존감과 취업 불안감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즉, 학

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취업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은 높아질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 여부에 대한 추측과 판단으로 규정하였다. 자기효능감의 해당 문항은 Oh Ji-Yeon (2016)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Oh Ji-Yeon (2016)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α 0.83으로 나타났다.

설문항목은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내가 노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할 것이다.’, ‘나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다.’, ‘나는 예기치 않은 일에 있어서도 유능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나는 예상치 않은 일을 통제 할 수 있는 능력이 풍부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노력한다면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 ‘나는 힘든 상황에서 나의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 할 수 있다.’, ‘어떤 문제에 직면 했을 때 나는 보통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등 총 7개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자존감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자기 자신이 느끼는 긍정적 평가이며, 개인적 가치관으로 정의내리고자 한다. 자존감의 척도는 Park Na-Yeon (2018)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박나연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α 0.80으로 나타났다.

설문항목은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

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나는 내 자신을 존경하고 있다.’, ‘나는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신감이 강하다.’, 등 총 7개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취업 불안감

본 연구에서는 취업 불안감을 졸업 및 취업에 직면하였을 때, 취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취업실패 상황으로 인한 정서적 체험이며, 학생 본인이 자신의 장래를 예측할 수 없고 취업경쟁과 이로부터 오는 심리적 충동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 인지를 몰라서 발생하는 생리적이고 행동적인 변화로 정의하였다.

취업 불안감의 해당 문항은 Kim Tae-Hee (2015)가 사용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Kim Tae-Hee (2015)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불안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α 0.83으로 나타났다. 설문항목은 ‘나는 취업만 생각하면 초조하고 불안하다.’, ‘나는 취업만 생각하면 자신감이 없어진다.’, ‘나는 취업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나는 취업만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나는 취업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 신경이 예민해진다.’, ‘나는 취업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나는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하다.’ 등 총 7개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학업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를 공부나 성적을 비롯한 학업으로부터 대학생이 느끼는 힘겹고 하기 싫거나 귀찮다고 생각되는 정신적 부담과 불안감, 불안, 우울, 근심, 긴장과 같은 편하지 못한 심리상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학업스트레스의 문항은 Oh Ji-Yeon (2016)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Oh Ji-Yeon (2016)이 사용한 도구는 Bak Byung-Gee and Sun-Mi Park (2012)가 개발한 문항에 저자가 수정 보완하였으며, Oh Ji-Yeon (2016)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α 는 0.96으로 나타났다. 설문항목은 ‘나는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나에게 화가 난다.’, ‘나는 성적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나는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하다.’, ‘나의 목표는 높은데 성적은 너무 낮은 것 같아 우울하다.’, ‘내가 해야 할 공부 양이 많아 답답하다.’, ‘나는 점점 어려워지는 공부가 두렵다.’, ‘나는 공부를 해야 하지만 하기가 싫다.’ 등 총 7개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본문의 내용을 결합하여 관련 변수에 대해 정의를 내린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5개 부분으로 나누었다. 첫 부분은 기본 자료이다. 두 번째 부분은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측정이다. 세 번째 부분은 취업 불안감에 관한 측정이다. 네 번째 부분은 자기효능감에 관한 측정이다. 마지막은 자존감에 관한 측정이다. 이번 조사는 서면 설문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설문대상자는 전남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2개의 대학에 재학 중에 있는 2,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79부의 유효설문지를 수집하였다. 회수율은 89%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표본은 총 179명이다. 먼저, 성별은 남학생이 91명(50.8%)이며 여학생은 88명(49.2%)으로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tegory	Division	Frequency	%
Gender	Male student	91	50.8
	Female student	88	49.2
Grade	Sophomore	25	14.0
	Junior	109	60.9
	Senior	45	25.1
University	Huniversity	80	44.7
	Juniversity	98	54.7
	The others	1	.6

Table 2. Factor Analysis Result

	Component				Communality
	1	2	3	4	
Academic stress1				.660	.532
Academic stress2				.751	.715
Academic stress3				.724	.714
Academic stress4				.804	.684
Academic stress5				.771	.708
Academic stress6				.721	.634
Employment anxiety1		.658			.762
Employment anxiety2		.753			.816
Employment anxiety3		.744			.750
Employment anxiety4		.757			.788
Employment anxiety5		.775			.759
Employment anxiety6		.780			.801
Employment anxiety7		.633			.620
Self-efficacy1			.620		.798
Self-efficacy2			.715		.770
Self-efficacy3			.763		.813
Self-efficacy4			.765		.814
Self-efficacy5			.752		.803
Self-efficacy6			.740		.826
Self-efficacy7			.725		.832
Self-esteem1	.790				.798
Self-esteem2	.809				.715
Self-esteem3	.776				.740
Self-esteem4	.862				.830
Self-esteem5	.762				.701
Self-esteem6	.828				.782
Self-esteem7	.654				.629
Eigenvalue	5.74	5.17	5.02	4.20	
Explained variance	21.26	19.14	18.61	15.56	
Cumulative explained variance	21.26	40.39	59.00	74.56	
Kaiser-Meyer-Olkin	.944				
Sphericity test of Bartlett	2379.568(p < .01)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Result

Variable	Item (removed item)	Average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alpha	
Moderator variable	Academic stress	7(1)	3.097	0.840	0.886
Independent variable	Self-efficacy	7(0)	2.863	0.860	0.958
Independent variable	Self-esteem	7(0)	2.999	0.870	0.938
Dependent variable	Employment anxiety	7(0)	3.297	0.888	0.943

나타났다. 학년은 3학년이 109명(60.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학년이 45명(25.1%)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학년은 25명(14.0%)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는 광주 소재 J대학이 98명(54.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광주 소재 H대학이 80명(44.7%), 기타 소재대학이 1명(0.6%)순으로 나타났다.

2.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타당도 검정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an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검정을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인 자존감,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취업불안감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일부항목을 제거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존감은 7개, 자기효능감은 7개, 학업스트레스는 6개, 취업불안감은 7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2>와 <Table 3>의 제시와 같이 KMO의 값은 0.944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은 값이 2379.568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자존감, 조절변수인 학업스트레스, 종속변수

인 취업 불안감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이다.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가 크롬바- α 값이 0.886으로 가장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조절변수인 학업스트레스가 0.958로 가장 높은 크롬바- α 값을 제시하고 있다. 종속변수인 취업 초조감의 크롬바- α 값은 0.943이며, 조절변수인 자존감의 크롬바- α 값은 0.938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의 크롬바- α 값이 0.6이상이므로, 문항들의 내적일치 합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속변수인 취업 초조감의 평균값이 3.2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평균이상의 취업 초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의 평균값은 3.097점으로 보통의 학업스트레스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조절변수인 자존감은 2.999점이며, 자기효능감은 2.863점으로 대학생들은 보통 이하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자존감, 조절변수인 학업스트레스, 종속변수인 취업 불안감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은 종속변수인 취업 불안감과 -0.765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조절변수인 학업스트레스와는 -0.529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독립변수인 자존감은 종속변수인 취업 불안감과 과는 -0.571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조절변수인 학업스트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Result

	Academic Stress	Employment Anxiety	Self-Efficacy	Self-Esteem
Academic Stress	1			
Employment Anxiety	.632**	1		
Self-Efficacy	-.529**	-.765**	1	
Self-Esteem	-.384**	-.571**	.708**	1

Notes: * p < .05, **p < .01

레스와는 -0.384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3. 가설 검정

1)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이 취업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이 취업 불안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F값은 65.606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 분산팽창계수(VIF)의 값이 크지 않아서 설명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기효능감의 표준화 계수값은 -0.562이며, t값이 -8.702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값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존감의 표준화 계수값은 -0.162이며, t값

이 -2.514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값을 가지고 있다. 전체모형의 R²값이 0.427이므로 모형설명력은 42.7%이다. 이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이 높을수록 취업 불안감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가설 1,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표준화 계수값은 -0.562이며, 자존감의 표준화 계수값은 -0.162로 자기효능감이 자존감에 비하여 학생들의 취업 불안감을 보다 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취업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2) 학업스트레스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Aiken and West (1991)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학업스트레스 조절효과를 검정하였다.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상호작용변수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줄

Table 5.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n Employment Anxiety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VIF
	B	Std.Error	Beta		
(Constant)	5.442	.192		28.344	
Self-efficacy	-1.033***	.119	-.562	-8.702	1.280
Self-esteem	-.299**	.119	-.162	-2.514	1.280
R-sq(Adj_R)	.427	(.421)			
F-value	65.606***				

Notes: * p < .05, **p < .01, ***p < .001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 Stress : Self-Efficacy and Employment Anxiety

	2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3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VIF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VIF
(Constant)	3.489***		79.439		3.512		72.495	
Self-efficacy(A)	-.586***	-.641	-11.295	1.388	-.579***	-.633	-11.086	1.409
Academic stress(B)	.188***	.206	3.624	1.388	.187***	.204	3.602	1.389
AxB					.044	.055	1.126	1.025
R-sq(adj-R)	.592	.587			.595	.588		
R-sq change		.592				.003		
F for change		127.747***				1.269		

Notes: * p < .05, **p < .01, ***p < .001

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절 회귀분석 방법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한 상호작용변수가 회귀모형에 추가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력(R²)이 증가하는지를 검정하는 것이다. 즉,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지 검정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 조절변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변수(독립변수×조절변수)를 추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1) 학업스트레스 조절효과 : 자기효능감과 취업불안감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이 취업 불안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단계와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조절변수인 학업스트레스를 포함한 2단계 회귀분석의 설명력(R²)은 59.2%이며,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 조절변수인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학업스트레스의 상호작용변수(자기효능감×학업스트레스)가 포함된 3단계 회귀분석의 설명력(R²)은 59.5%이다. 3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단계에 비하여 0.3% 증가하였으며, F변화량 값은 1.26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학업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과 취업 불안감과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가설 3은 기각되었다. 반면에, 2단계와 3단계 회귀분석에서 학업스트레스는 취업 불안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취업 불안감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학업스트레스는 취업 불안감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라고 할 수 있다.

(2) 학업스트레스 조절효과 : 자존감과 취업불안감

독립변수인 자존감은 종속변수인 취업 불안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단계와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자존감을 포함한 2단계 회귀분석의 설명력(R²)은 44.5%이며, 독립변수인 자존감, 조절변수인 학업스트레스, 자존감과 학업스트레스의 상호작용변수(자존감×학업스트레스)가 포함된 3단계 회귀분석의 설명력(R²)은 46.3%이다. 3단계 회귀모형의 설명

Table 7.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 Stress : Self-Esteem and Employment Anxiety

	2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3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VIF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VIF
(Constant)	3.489***		68.114		3.536		65.189	
Self-Efficacy(A)	-.382***	-.418	-6.870	1.173	-.359	-.393	-6.457	1.207
Academic Stress(B)	.352***	.384	6.320	1.173	.357	.391	6.507	1.175
AxB					.124**	.135	2.406	1.030
R-sq(adj-R)	.445	.439			.463	.454		
R-sq change		.445				.018		
F for change		70.616***				5.787**		

Notes: * p < .05, **p < .01, ***p < .001

력은 2단계에 비하여 1.8% 증가하였으며, F 변화량 값은 5.787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업스트레스는 자존감과 취업 불안감과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가설 4는 채택되었다. 2단계와 3단계 회귀분석에서 학업스트레스는 취업 불안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취업 불안감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3단계에서 자존감과 학업스트레스의 상호작용변수의 베타계수 값은 0.124로 취업 불안감에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자존감과 취업 불안감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이 취업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업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과 불안감 사이에서, 자존감과 취업 불안감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취업 불안감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취업 불안감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존감은 취업 불안감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의 자존감이 증가할수록 취업 불안감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학업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과 취업 불안감과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학업스트레스는 자존감과 취업 불안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이 취업 불안감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1 과 연구가설 2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이 증가할수록 취업 불안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로 부터 자기효능감이 자존감에 비하여 학생들의 취업 불안감을 보다 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취업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진단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8. Research Theory Analysis Results

Study Hypothesis	Analysis Result
Self-efficacy→Employment anxiety	Accepted
Self-Esteem→Employment anxiety	Accepted
Self-efficacy×Academic stress→Employment anxiety	Rejected
Self-Esteem×Academic stress→Employment anxiety	Accepted

둘째, 학업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과 취업 불안감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3을 분석한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과 취업 불안감과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회귀분석 결과로부터 학업스트레스는 취업 불안감을 설명하는 독립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가설 3이 기각된 원인에는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조절변수인 학업스트레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조절효과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학업스트레스가 자존감과 취업 불안감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4를 분석한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자존감과 취업 불안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취업불안감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면, 대학생들의 취업 불안감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존감이 높은 집단이나 낮은 집단이나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취업불안감이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집단에서 학업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이 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학업스트레스가 낮을 때 보다는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질 때 자존감이 취업불안감을 감소시키는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

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취업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업스트레스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자존감보다 자기효능감을 제고시키는 것이 취업불안감 감소에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의 증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학업스트레스를 고려할 경우, 대학생들의 취업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에게 과대한 학업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동기의 생성, 스트레스의 완화 교육이나 훈련, 그리고 학생 상담의 강화 등 비제도적인 강구책과 함께 졸업학점의 축소, 교양필수, 전공필수 등 필수과목의 축소, 학점 인정제 등 제도적인 강구책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교 교육에서 전인교육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과 적성교육의 강화를 통해 학업이 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한정적인 지역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다소 미흡하다. 따라서 더 넓은 지역에서 폭 넓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

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지역의 대표적인 공립대학과 대표적인 사립대학에서만 수집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향후 더 많은 대학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 불안감에 미치는 영

향요인으로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지만 더 많은 자아요인들을 간과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자존감 외의 다양한 자아요인들을 설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iken, L. S. and S. G. West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Barlow, D. H. (2004), *Anxiety and its disorders: The nature and treatment of anxiety and panic*, Guilford press.
- Bak, Byung-Gee and Sun-Mi Park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cademic Stress Scale",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6(2), 563-585.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335-453.
- Beck, A. T. (1979),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Penguin.
- Branden, A. (199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Cho, Gyu-Pan (2008), "A Study of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Job-Seeking Anxiety Test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6(2), 53-75.
- Choi, Hae-Rim (1986), *Stres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Cognitive Behavioral Counseling* (Doctoral Dissertation), Seoul: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 Choi, Jae-Hee (2005), *A Study of Learning Strategies and Academic Achievement Based on Career Personality Types of Middle School Students: Focused on Their Holland Career Personality Types* (Master's Thesis), Seoul: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Co.
- Jeon, Min-Ji, Sang-Eun Jung, Sun-Hwa Cho, Eun-Ji Han, Ji-Woo Hyeon and Selo-Hee Kim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Employment, Appearance of University Students in Some Region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5(4), 518-526.
- Judge, T. A. and J. E. Bono (2001), "Relationship of Core Self-Evaluations Traits-Self-Esteem, Generalized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Emotional Stability-with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1), 80.
- Jung, Bong-Hyun (2009), *The Effect of Self-esteem on the Stress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The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 Kim, Hyon-Dong (2014), "Investigating Predictors for Job Preferences of College Students: Self-Esteem & Future Career Information",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Vocational Education*, 33(6), 81-96.
- Kim, Myung-Ok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ing Behavior and Jobs Seeking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Moderation Effect of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ster's Thesis), Seoul: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Kim, So-Hee and Jung-Sun Hahn (2007), "Relations Among Learner's Personality Types, Self-Direction, Attitudes and Self-Efficacy toward Technology, and Achievement in Cyber University", *Education Information Media Research*, 13(2), 79-106.
- Kim, Tae-Hee (201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University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employment anxiety, Jobs Seeking Stress* (Master's Thesis), Seoul: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s.
- Kim, Ui-Chol and Young-Shin Park (2001), "The Stress, Coping and Life-Satisfaction During The Economic Crisis in Korea: With SC Focus o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elf - Efficacy",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6(1), 84-87.
- Kim, Yeon-Jung and Eun-Young Son (2012), "The Relation of Two Dimensional Typology in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with College Students' Learning Behavior",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5), 2443-2461.
- King, K. A. (1997), "Self-Concept and Self-Esteem: A Clarification of Terms",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67(2), 68-70.
- Kum, Jeong-Hwa (2018),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and Quality of Life on Academic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0), 325-338.
- Lazarus, R. and S. Folkm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ee, In-Sook (2011), "A Study on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Depression, and Employment Stres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5), 2487-2500.
- Lee, Jae-Yeon (2014), *The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occupational stress* (Master's Thesis), Seoul: konk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Lee, Joo-Won (2008),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Learning Strategy on Academic Stress: Focused on Metacognitive Strategy* (Master's Thesis), Gyeonggi-do, Korea: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 Lee, Kyung-Oh (2001), *The impact of Leisure Activities on Learning Stress: The Case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 Lee, Mi-Kyung (2004), *A Study on the Employment Stress of College Students and the Self-efficacy of career in Jeollabuk-do* (Master's Thesis), Jeollabuk-do, Korea: 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 Lee, Yang-Sook (2013), *The Effects of Stress and Career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 on Life Satisfaction* (Master's Thesis), Gyeonggi-do, Korea: Dankook University.
- Li, Gui-Fang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Career Choice Anxiety of Graduates from Newly-Built Undergraduate Colleges* (Master's Thesis), Chongqing, China: Xinan University.
- Oh, Ji-Yeon (2016), *Major Dental Hygiene Student's Academic Stress and The Relationship of College Life: Self-Efficacy, Burnout and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Chungcheongnam-do, Korea: Hanseo University.
- Oh, Mi-Hyang and Sung-Moon Chun (1994), "Analysis of Academic Stressors and Symptoms of Juveniles and Effects of Meditation Training on Academic Stress Reduction",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15(0), 71.
- Ohman, A. (2008), *Fear and anxiety, Handbook of Emotions*, Third edition, chapter 44, 709.
- Pan, Ming and Yi-Jia Lu (2006), *A Summary of the Research on employment anxiety of College Students*, Neijiang science and technology(1).
- Park, Mi-young and Tae-Hoon Kim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job anxiety and job stres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0), 343-343.
- Park, Na-Yeon (2018), *The Effect of Jewelry Using Psycho-Geometry Tests on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Stability*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nam-do, Korea: Kaya University.
- Park, So-Yeon, Jin-Kyung Kim and Taek-Young Lee (2011), "Effect of Occupational Therapy Volunteering on Self-Esteem and Self-Efficiency i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2), 376-384.
- Park, Yun-Hee (2017),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n the University Students' Job-Seeking Anxie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0(2), 41-61.
- Park, Young-Woo (1994), *A Study on the Choice of Career and Employment Anxiety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Konkuk University.
- Park, Young-Won (2017), *The Effect of Hotel Management Students' Career Choice Motivations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e Moderating Role of Self-Efficacy* (Master's Thesis) Seoul: Graduate School of Sejong University.
- Ryu, Bu-Yeol (2006), *A Study on The Effects of Peer Counselor Training For High School Students on Their Empathic Ability, Prosocial Behavior and Self-Esteem* (Doctoral Dissertation), Seoul: Konkuk University.
- Seo, Hee-Joo (2003), *Effect of Coping Method for Academic Stress on Stress Symptoms* (Master's Thesis), Daegu, Korea: Daegu Catholic University.
- Seo, Myung-Ho (2010), *A Study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Gyeongsangnam-do, Korea: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Won, Ho-Taek and Soon-Hwa Kim (1985), "A Study on the Stress Fact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ent research*, 20(1), 43-51.
- Yim, Yeon-Kyoung (2017), *Impacts of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Career-choice Readiness on Job-Seeking Stres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Master's Thesis), Seoul: Sejong University.

Zhang, Xiao-Qin (2005), *Predictive Factor Analysis of employment anxiety of University Graduates in Jiangsu* (Master's Thesis), Suzhou, China: Graduate School of Suzhou University.

Zhao, Yan-Sheng and Wang Le (2017), "Effect of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on employment anxiety: An Empirical Study Based on Human Capital Regulation", *Journal of Beijing University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Social Sciences Edition)*, 30(1).